

서울시 거주 미취학자녀 양육 부모의 지역사회 범위인식과 가족친화성 평가

진 미 정(서울대학교 교수) · 노 신 애(한국건강가정진흥원 팀원)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인프라와 사회자본, 가족친화성 인식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의 범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범위에 따라 정책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지역사회의 범위인식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지역사회의 범위인식에 따라 지역사회 인프라, 사회자본, 가족친화성 인식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미취학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 즉 남성 318명과 여성 310명으로 총 62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1.0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로지트와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 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좁게는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넓게는 서울시 전체까지 매우 다양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미리 규정하지 않으면 연구자와 응답자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사회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지역사회 범위를 ‘아파트 단지’나 ‘동’으로 응답할 확률이 ‘구’로 응답할 확률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의 범위를 ‘구’로 인식하는 집단이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사회의 범위를 ‘아파트/주택 단지’로 좁게 인식하는 집단이 사회자본과 가족친화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된 이후 서비스 인프라가 ‘구’ 단위에서 기획되고 설치된다는 점을 떠올릴 때(예를 들어, 보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의 범위를 좁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참여나 주민들 간의 신뢰 등을 반영하는 사회자본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 인프라보다는 사회자본이 가족친화성 인식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나 가족친화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구’보다는 더 좁은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의 dks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가족친화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역시 ‘구’의 범위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주택단지’와 같은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의 범위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서비스 인프라가 ‘구’ 단위에서 확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인프라 역시 가족친화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가 함축하는 시사점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나 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사회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범위와 무관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단일한 행정단위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을 시행한다면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